

일반논문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학초전』과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배 항 섭(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목차

1. 머리말
2. 최고 지도자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3. 동학농민군의 활동 : 박학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4. 맺음말 - 농민군의 해산과 반농민군 세력의 농민군 탄압

1. 머리말

경상도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학에 입도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상도 각지에서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은 1894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교단 조직의 포교활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 호남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이후 전라도 농민군이 보여 준 승리와 폐정개혁 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상도 농민군의 크게 활동한 지역은 경상도 북서지역과 남서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서지역은 충청도 및 강원도와, 남서부지역은 전라도와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¹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1 경상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52집, 1986; 「19세기 영남 김산의 양반지주층과 향내 사정」, 『동방학지』 70집, 1991;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안동문화』 15, 1994; 이윤갑, 「1894년의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표영삼, 「경상 남서부 동학혁명」, 『교사교리연구』 제6호, 2000; 「경상북서지역 동학군 활동」, 『신인간』 678, 2007. 2·3월 합동호; 申眞姬, 「義城지역 향촌 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이병규,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 2015; 이윤갑, 「19세기말 경상도 성주의 사회변동과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119, 2015; 이이화, 최재목, 임형진, 신영우, 박흥규 외,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대구와 경상 감영의 역사적 위상』(동학총서 4), 모시는사람들, 2015; 이이화, 신영우, 이노우에 가즈오, 임형진 외, 『경상도 구미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6), 모시는사람들, 2016.

또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에 이르는 연로에 병참(兵站)을 설치하였다. 경상도에는 동래에서 문경까지 약 40리마다 병참부를 설치하였는데, 7월 중순에는 부산·구포·삼랑진·물금포·밀양·청도·대구·다부역·낙동·해평·태봉·문경 등에 설치되었다. 각 병참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다.² 이 과정에서 연로의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시키는 등 전라·충청 지역에 비해 일본군과 직접적인 마찰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봉기 초기부터 각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경상도 농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진압된 것도 일찍부터 일본 병참수비대가 진압에 가담한 데 기인하는 바가 컸다.³

여기서는 새로 발굴된 자료인 『갑오군정실기』(이하 『실기』)를 통해 경상도 북부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그러나 『실기』에는 경상도 지역과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다. 경상도 관련 기사가 15건 정도 나오지만, 이 가운데 농민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록은 7~8건 정도이다. 대부분은 상주 소모영 관련 기록이고 영남토포사 지석영(池錫永)의 보고

2 일본군의 전선 가설과 병참부 설치에 대해서는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22-23쪽; 신영우,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1894년 일본군 노즈(野津) 제5사단장의 북상 행군로와 선산 해평병참부」, 『동학학보』 39, 2016 참조.

3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2008(충남대충청문화연구소편, 『체노사이드와 한국근대』, 경인문화사, 2009);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4 신영우는 경북 지역에 활동한 동학농민군 대접주는 조직은 관동포(예천·문경 일대), 충청포(상주·선산·김산 일대), 상공포(상주·예천 일대), 선산포(선산·김산 일대), 영동포(김산·개령 일대) 등 5개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세력권이 겹치면서 조직을 확대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에서 보이는 진주 지역 농민군에 대한 기록이 1건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는 자료는 1건도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시 새로운 자료인 『학초전』의⁵⁾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거나 기왕의 이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초전』을 바탕으로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재조명한 글로는 박두우, 「학초전을 통해 본 예천 동학사의 재조명」(2011)과 신영우, 「학초전을 통해 본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발표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등이 있다. 경북 지역 농민군 활동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 온 신영우의 글은 예천을 비롯한 경북 지역 농민전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농민군의 신분적 구성문제, 향촌 사정, 일본군과의 관계, 농민군 도회, 서장자 전투 등을 포괄하는 매우 큰 구도 속에서 『학초전』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중복을 피해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박학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농민군의 활동상, 그리고 농민군에 대한 반농민군의 구체적 탄압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초전』(1, 2;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4), 2015. 『학초전』은 경상도 예천 순흥 경주 청송 영양 등지에서 살았으며, 동학농민전쟁에 접주로 가담하였던 박학래(1864-1942)가 평생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을 나이 60이 되던 1923년에 기록한 자서전이다(자세한 해제는 이병규, 앞의 글, 194~196쪽 참조).

2. 최고 지도자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3월부터 동학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 알려진 6월 말부터 활동이 격화되었다. 예컨대 3월 20일 무렵부터 농민군의 행동이 가시화하였고, 3월 말경부터는 동학교도들이 ‘성군취당(成群聚黨)’하기 시작하였다.⁶ 경상도 金山에 거주하던 화순 최씨가에서 5대에 걸쳐 써 내려온 일기인 『세장년록(世藏年錄)』 가운데 최봉길(崔鳳吉, 1853~1907)이 쓴 갑오년 조 기록에 따르면, 3월 20일 인근의 송낙현이라는 자가 동학에 입도한 후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4년 전에 買得한 畓을 묵혔으나 그동안에 結稅만 빼앗겼으니 畓을 물리고 그동안 낸 結세를 내놓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갔다고 하였다. 이 무렵이면 경상도 일각에서도 동학교도들의 행동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경상도 지역에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예천 지역이었고 그 중심인물은 최맹순이었다. 최맹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왔지만, 『학초전』에는 그의 인물됨과 비극적 최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그가 예천 소야(蘇野)에 접(接)을 설치한 것은 1894년 3월이었다. 이들은 보은 지역의 동학교도들과 서로 통하고 있었는데, 최맹순은 자칭 관동수접주(關東首接主)라 하며 경상도는 물론 다른 도의 교도까지 규합하기 시작하였다.⁸ 이후 6~7월이 되면 그 세력

6 「甲午實記」, 『東學亂記錄』 下, 3쪽.

7 「歲藏年錄」, 『총서』 2, 246쪽.

8 「甲午斥邪錄」, 『총서』 11, 7~8쪽. 예천 상주 김산 지례 등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해서는

이 매우 커지면서 소야리는 경상 북서부 지역 농민군 활동의 핵심적 근거지가 되었다.

본군에서는 이른바 최맹순이란 자가 본년 3월에 蘇野[예천군의 서쪽 50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접소를 설치하고 보은의 동도들과 상통하여 스스로 關東首接主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 부서를 정하고 이른바 接主·接司·奉令·教授·大正·中正 등을 임명하였다. 그 接은 法所라고 하였고, 그들끼리는 道人이라고 불렀으며, 무리를 모집하는 것을 布德이라고 하였다.

원래 최맹순은 여러 해 동안 옹기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무리들은 모두가 사망에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무리배들이었다. 이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침탈을 일삼다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세력이 매우 커져서 마을을 횡행하며 포덕을 한다고 하면서 속여서 꺾어내고 협박하니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날마다 수천을 헤아렸다. 이에 접소를 분설하여 각 면의 방곡에 접소가 없는 곳이 없었으나 서북의 외지(外地)가 특히 심하였다. 대접은 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소접은 수십, 수백 명이었다. 시정의 동혼(童昏)·평민·장획(藏獲, 사내종과 계집종)·고용(雇傭) 등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득세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관장을 능욕하고, 사대부를 욕보이고, 마을을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무기를 훔치고, 남의 나귀와 말을 몰아 가고, 남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하여 묶어 놓고 구타하였으며 종종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러니 인심이 흉흉하여 아침에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경내의 사대부들 중에서는 혹 먼저 욕을

각주 1)에 인용한 신영우의 논문들 참조. 소야집이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4월 초중순부터 김산(김천), 지례, 거창 등에서도 “불온한 싸이 트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평소 동학당의 소굴인 상주에서는 충청도 동학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69쪽).

당하고 나중에 물든 자도 있었다. 같이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은 서로 끌어당겨서 무리를 믿고 행패를 부렸다. 수백 명이 사는 촌락에 1~2명의 東人만 나타나더라도 황급하게 달아나 숨어 버렸다.⁹

위의 인용문과 체포된 뒤 그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통해 보면 최맹순은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1882년 무렵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옹기장수를 하며 포교활동을 해 왔으며, 1894년 활동의 절정기에는 휘하에 48개집 7만여 명의 교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11월 22일 갑오[二十二日甲午]

부병이 최맹순 등 3명을 체포하여 관부로 들여보냈다. 군수는 이들의 죄를 조사하여 다짐을 받도록 하였다.

최맹순[나이 42세]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허망한 邪術을 배워 22년 동안 은둔하여 그것을 몰래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갑년 3월에 본군 소야 땅에 접소를 설치하고 他道와 本道를 막론하고 무리를 꺾어서 모으자 그 숫자가 7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좁고 무리는 많아서 각처에 접소를 설치하니 그 숫자가 48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리들은 모두들 거칠고 잡된 亂類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명령과 순영의 지시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효수하여 경계시킬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龍宮의 무기를 탈취하여 예천 읍민들을 도륙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하여 달아나서 강원도 평창 접소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중략)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최한결[나이 21세]이 말하기를, “제 아버가 이미 죄인의 우두머리이므로 달

9 「갑오척사록」 ‘집강소 일기’, 『국역총서』 3, 262.

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죽을죄를 지었음을 자백하오니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장복국[나이 55세]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본군의 소야에 거주하였습니다. 崔哥, 최맹순과 이웃에 살았던 관계로 邪學에 유혹되어 들어가 접사가 되어 무리들을 불러 모았는데 500여 인에 이르렀습니다. 최맹순과 공모하여 고을을 공격하였고 결국 패하여 쫓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학에 이술 異術이 있다고 맹신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그것을 공부하였으며 이것을 배워야만 난세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대를 물리치는 부적[退兵符]과 군대를 물리치는 주문[退兵呪文]을 지니고 있다가 체포될 때 결국 탄로가 났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음을 자백하오니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¹⁰

『학초전』에 따르면 원래 소야 동학 대접주 최맹순은 충청도 보은 장안 최법헌 다음으로 관동포로는 제일 접주이었다고 한다. 사람이 체골은 썩 장대하지는 않으나 심지가 총명 단아하여 포덕을 많이 하였다. 항상 도인들을 보고 도인 자세를 일절 하지 말고 유불선 수도나 착실히 하면서 각 안기업(各安其業)하라고 권하였다. 도인 중에서 혹 부정당한 행위를 하면 하지 못하도록 걱정하던 사람이었다.¹¹ 앞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최맹순은 8월 28일 예천 읍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평창으로 도피하였다. 이후 그는 평창에서 100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하여 다시 예천을 공격하기 위해 10월 17일 예천 적성리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다시 충청도로 이동하였으나, 11월 21일

10 「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325쪽.

11 『학초전』 1, 132쪽.

충주 독기(篤基) 근처에서 아들 한걸(汗杰) 및 장복극(張卜極)과 함께 예천에서 파견한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다음 날이자 예천 장날이었던 11월 22일 남사장(南沙場)에서 예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하고 모래사장에 묻혔다.

11월 22일

龍宮의 무기를 탈취하여 예천 읍민들을 도륙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하여 달아나서 강원도 평昌 접소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100명 정도의 접의 줄개들을 모아 지난달 17일에 본읍 적성리로 갑자기 들이닥쳐 인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충주 篤基嶺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1월 21일

적성동 統首가 갑자기 보고하기를, “동도의 거괴 최맹순이 충주의 篤基 등지에 숨어 있으니 급히 부병을 파견하여 체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즉시 유사와 포병 30여 명을 파견하였는데 伐川[군의 북쪽 70리 지점에 있다] 까지 추격하여 최맹순과 그의 아들 汗杰 및 장복극을 잡아왔다. (중략)

최맹순에게 엄하게 곤장 1대를 친 뒤에 즉시 武士에게 그를 끌고 나가 남사장에서 목을 잘라 내걸도록 하여 백성들을 경계시켰다. 마침 장날이어서 좌우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모두들 통쾌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최한걸과 장복극을 끌고 나와 각각 엄하게 곤장 한 대씩을 치고는 칼을 찌워 옥에 가두었다. 유사 등이 모두들 아뢰기를, “오늘은 장날이어서 두 놈의 친척과 추종 무리들이 부중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밤을 틈타 빼내어 갈까 걱정이 되니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군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즉시 끌고 가도록 명령을 내리자 부병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둘러싸고 끌고 가서 총을 난사하여 죽인

후 모래사장에 묻었다.¹²

『학초전』에 따르면 최맹순 부자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이었다. 부자가 함께 죽임을 당한 그날은 바로 독자였던 아들 한걸이 혼례를 올린 바로 다음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의 신부까지 자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소야 대접주 최맹순의) 독자 자식의 나이가 근 이십이나 되었으니 부모의 뜻으로 성취할 때라 친구의 중매로, 예천 별재라 하는 곳에 사는 범절과 인물이 당세에 특출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김씨가(金氏家)의 규수와 혼취를 시켰다. 아들이 그 신부와 첫날밤 자고 이튿날 부자가 함께 예천 집강소 포군에게 잡혔다. 예천 집강소는 일본 군인과 용궁에서 소야로 가서 해산시킨 줄 알고 그 뒤 빈터에 가서 인민의 재산을 샅샅이 강탈하던 차, 최맹순 부자가 은적하여 혼인한다는 말을 듣고 맹순 부자를 죽이고 그 신부를 탈취하고자 읍에 잡아다 가두어 놓았다. 최맹순의 죄로 말하면 포덕만 많이 하였지 자기가 나서서 누구를 침토한 일은 없으되 대접주로 불리게 되었으니 ‘돈을 많이 주면 살려 준다.’ 하여 있는 대로 빼앗아 먹었다. 그 아들이야 또한 무슨 죄가 있나? 동학 접주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미색 숙녀의 남편이니 죽여 없애야만 할 터, 첫날밤 하룻밤 동침한 그 김씨는 포군에게 잡혀 읍에 데려와 가두지는 아니하고 집강 포군이 만단으로 달래었다. 화간 강간을 만단으로 청하여도 김씨는 기어이 듣지 아니하였다. 집강자들이 말하길 “내 말만 들어 주면 남편을 살려 준다. 동학군은 쓸데없다. 우리와 살면 금의 호식에 영광과 사랑을 받는다. 만일 안 들으면 죽인다” 하면서 백단으로 달래어도 듣지 아니하였다.

말래에는 최맹순 부자를 함께 죽이고 난 뒤, 김씨는 의탁 없고 남편 없으

12 「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325~326쪽.

면 자연 수중에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죽은 후에 만단으로 달래었지 만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살 순절하였다. 당시 강도 굴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성세에 따라 아침에 모이고 저물 때 흠어져 아침을 드리며 재산을 털어 갔다. 뿐만 아니라 생남생녀 자식 낳아 기르던 여자도 승세를 좇아 송구종신으로 예천 집강인 서방이라면 등용문처럼 여겼다. 최맹순 자부 김씨는 초혼한 하룻밤 지낸 남편에게 무슨 깊은 정이 있으리오만, 강도 천지에 우뚝한 ‘일야정부 만고입절(一夜情夫 萬古立節)’이라 하겠다. 애석하다, 최맹순은 자손이 멸망하였다.¹³

3. 동학농민군의 활동 : 박학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예천 지역 농민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였다. 농민군은 7월 5일 수십 명이 읍내에 들어와서 前營將 李裕泰를 끌어내서 결박·구타하고 돈을 탈취해 갔다. 7일에는 邑吏 黃俊大의 동생 집의 무덤을 파헤쳤고, 9일에는 읍내로 들어가 읍리 金炳運을 끌어내어 때리고,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다. 15일에는 于音洞 접주 朴來憲이 수십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진가점(京津街店)에서 이임하여 가는 안동부사¹⁴ 일행을 공격하고 행장을 빼앗았다. 이들은 부사의 의관을 벗겨서 빼

13 『학초전』 1, 132~134쪽. 충청도에서는 반대로 농민군이 양반집 딸이 혼인하는 날 밤에 소란을 피우고 결국 신방에 든 신랑을 붙들어 가 버려서 갓 초례를 치른 꽃 같은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避亂錄』,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9, 71쪽.

14 안동부사는 洪鍾榮으로 그는 1893년 5월 29일 안동부사로 부임하였으며(『승정원일기』 고종 30년 5월 29일), 1894년 7월 19일 李禧元으로 교체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7월 19일).

앗고 묶어서 마구 때렸으며, 그 행장과 아녀자의 이부자리 및 비녀와 귀고리를 모두 빼앗았다.¹⁵

예천 읍치 외곽 지역 곳곳에 농민군 도소가 설치되었고, 곳곳에서 기존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악덕 지주나 토호들을 정치하였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읍정을 관장하고 폐정들을 개혁해나갔다. 예컨대 가장 세력이 컸던 소야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송사가 있어도 관아를 찾지 않고 모두 소야에 갔다고 한다.¹⁶ 또 농민군 자체에 檢察官 혹은 안렴사가 있어서 이들은 예천 풍기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폐정개혁 활동을 조정하거나 감찰하였다. 검찰관 張克元은 예천 각지를 돌아다니며 포악한 자들을 정치하고 다녔는데, 그의 行裝과 수행원들이 마치 관찰사와 같았다. 또 그가 이르는 곳에서는 그 위세가 호랑이와 같았으며 송사를 처결해 달라고 온 사람들이 시장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¹⁷ 이와 같이 농민군 측에서는 검찰관을 파견하여 각 군현을 순행하며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을 감

15 「갑오척사록」에서 정리.

16 비단 소야집만 아니라, 일대 각 군현의 사정이 모두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군(郡), 각 접(接)에 피착되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다 와서 옛날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기를 호소하는데, 어떠한 집은 가보니 4~50명 또는 근 백 명씩 열을 지어 앉아서 그중에 民狀을 받아 쌓아 놓고 公事를 처리하고 있었다(『학초전』 1, 73). 또 같은 책, 70쪽, 88쪽 참조.

17 8월 20일 갑자(二十日甲子) “閭巷의 소접들은 각자 줄개들을 풀어서 서로 다투어 침학을 일삼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어 원통함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였다. 詞訟은 모두 소야의 접소로 몰렸으며 관부는 적막하였다. 또 동도의 檢察官 張克元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각 읍을 돌아다니며 포악한 자들을 금지한다고 떠돌면서 도리어 탐욕스런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行裝과 수행원의 규모가 道伯, 관찰사에 비견되었다. 그가 이르는 곳에서는 그 위세가 호랑이와 같았으며 송사를 처결해 달라고 온 자들이 시장처럼 몰려들었다.”(『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287쪽).

사하거나 소송을 처결하였다. 소야점의 최맹순도 8월 11일 유천 접주 조성길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자 직접 그를 체포하여 예천 관아로 압송해 보내기도 했다.¹⁸

그러나 농민군의 활동이 지도부의 의도대로 잘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 『학초전』을 쓴 박학래는 당시 농민군의 활동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름은 崔時亨이오, 호는 法軒이라고 한다. 충청도 보은 장안동에 거주하면서 1893년(계사년)과 1894년(갑오년)에 동학을 포덕하여 각 도 각 군 면면 촌촌이 일제히 입도하니 <그동안 서슬 퍼렇던> 각 영문과 군수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각처의 동학 집에서 연락을 상통하고 기호를 높이 세우고, 각 접주 기찰들이 앓고 섬이 엄숙하고 원통한 백성의 민소(民訴)가 동학 집에서 처리되었다. 周衣 입고 지팡이 짚고 서슬 퍼렇게 사방으로 횡행하며 인민을 잡아간다, 들어간다, 결박하여 돌을 짓이겨 놓는다. ‘아이고 지고’ 하는 소리,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냐 하면, 예전의 양반이거나, 아전, 사환으로 세력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자기의 부녀 조족 척간이 폐가하고 욕 본 원수며, 다소는 재물을 뺏기고 찾으려 하기, 怨塚勒掘이다. 유부녀 강탈당한 사람, 사문사 존문에 뺏어 먹은 것이며,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영을 취하여 불법으로 뺏긴 사람이며, 무단히 생피불목으로 뺏긴 사람 등 죽을 자는 구기소실(舊紀消失)하면 죽을 양반이신 것이다. 이 같은 세월을 쫓아 욕을 면하기 위하여 입도도

18 8월 11일 소야 접주 최맹순은 유천 접주 조성길을 압송하고 그 죄안을 기록해 예천 집강소에 보내면서, 이미 떠들썩하게 할안(割案)을 하였으니 마음대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하였다(『갑오척사록』 8월 12일, 275쪽). 예천집강소에서는 다음 날 “趙成吉을 엄하게 곤장을 치게 하고, 복을 치며 시장에서 조리를 돌렸다.”(『갑오척사록』 8월 12일, 276쪽).

하고, 세력을 쓰려고 입도도 하고, 가정을 보존하려고 입도도 하여 마침내는 동학 중에도 부정당한 사람이 자연 많으니, 유불선 三道가 어찌된 것인 의무인지도 모르고 攻滅之門의 亂臣賊子 나듯이 동학의 불법자도 적지 아니하였다.¹⁹

농민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농민군 측에서 기록한 것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위의 자료는 농민군의 입도 배경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농민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검찰관도 있었지만, 이를 빙자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으며, 소위 이 지역 감찰관들의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보은 동학교단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학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의성인 李章表를 들고 있다. 그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억측으로 지어내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그 버릇대로 보은 장안까지 가서 그 말썽을 일으켜 주장하고, 보은에 가서 입도하고 동학도 검찰이라 하며 행세하고 다녔다.” 이에 따라 박학래를 비롯한 농민군들은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8월 13일에 각 군 각 처 동학도들이 용궁 암천동 반석에 대도회를 열어 이장표를 잡아다가 亂言名例 손상죄에 대해 건디지 못하고 아침에 엄태 30대를 가하고 만장회 때 쫓아내었다.” 이 무렵 보은 대도소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행동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보은에서 박학초의 수단도 볼 겸 혹, 잘못된 진행으로 民擾만 일으킬지 걱정이 되어 특별히 비밀 按廉使로 李容九를 파견하여 각처 풍문을 비밀 조사로서

19 『학초전』 1, 70쪽.

하였다. 이날 <이용구는> 영벽정 위 김순홍 집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²⁰

한편 박학래가 입도한 것은 1894년 4월 말 이후였다. 입도 당시 경상감사가 조병호였다고 하였는데,²¹ 조병호가 경상감사로 임명된 것은 4월 25일이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유에 대해, “오백년 士族이 죽어라 라고 하니 <이를> 구제할 도리가 없는지라”. “사족대가 뜻을 가진 사람 4~5인이 같은 마음을 먹고 학초가 먼저 입도하는데, 關東布 崔孟淳의 집 朴賢聲의 稷谷布에 입도하였다”라고 하였다.²² 입도 이유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입도 이후 박학래의 행적이나 생각 역시 매우 독특하다.

그가 보여 준 가장 대표적인 생각과 행동은 동학농민군들이 성군작당하여 양반 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분하는 행위를 적극 만류한 점이다.²³ 『학초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토색질이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모습은 기왕의 자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애, 또 농민전쟁 시기에 보여 준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그는 1884년에 부세 부담과 관련하여 이웃한 반촌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반촌의 장두 자격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 바 있으며,²⁴ 문벌을 숭상하는 세도정권은 물론 민비와 대신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20 『학초전』 1, 92~96쪽.

21 『학초전』 1, 71쪽.

22 『학초전』 1, 73쪽.

23 『학초전』 1, 73~107쪽.

24 『학초전』 1, 48~67쪽.

그는 방백수령에 대해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백성을 떨어 먹는 강도의 괴수라. 어찌 인민의 부모라 하리오.”라고 하는 등 정치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운과 해월에 대해서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동방의 성인”으로 부르기도 했다.²⁵ 또한 농민전쟁 당시 예천을 공격을 앞둔 화도도회 때는 모사대장을 맡기도 하는 등 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²⁶

그가 농민군들의 집단적 설분 행위를 만류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과렴치한 인물들에 대한 정치까지 적극적으로 만류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평소에) 동학농민군들이 성군작당하여 양반 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분하는 행위에 대해 “孔孟之門의 난신적자요, 유불선 동학지문의 난신적자”라고 비난하였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⁷ 또 앞선 안동부사 일행에 대한 공격에서도 보이듯이 농민군들이 집단의 힘을 빌려 평소의 사적인 원한을 갚는 사건이 적지 않았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초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농민군의 안동부사 공격은 용궁군 岩川에 살던 농민군 金順明이 주도한 것이었다. 김순명은 “金東籬의²⁸ 자손

25 『학초전』 1, 86~87쪽.

26 『학초전』 1, 111쪽.

27 『학초전』 1, 73~107쪽.

28 “김동리의 이름은 允安이고, 자는 而靜이다. 경신년(1560, 명종15)에 태어났고, 안동 九潭 출신이다. 퇴계 선생과 西厓를 존숭하여 섬겼다. 도량이 크고 넓어 구속됨이 없었다. 글을 잘 지었는데, 시에 더욱 능하였다. 병오년(1606, 선조39) 召村 察訪에 轉任되었는데, 申伊溪와 사는 곳이 매우 가까워 왕래하며 시를 주고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또한 나와도 서로 알고 지내며 정이 좋아 화답한 시가 많다. 뒤에 直長으로 부름에 나아갔다. 자호는 東籬·晴巒이다”(成汝信, 『浮查集』 제6권, 雜著, 從遊諸賢錄).

으로 9대에 걸쳐 안동 좌수와 진사를 지낸 집이라. 도내며 안동 향측에 유수한 그 종손의 동생이었다. 주색을 좋아하던 그는 民娶 장가를 들어 그 처의 재산도 많이 얻어 쓰고, 행위는 양반에 토호 겸 義氣男子인 듯한 사람이었다. 안동 군수 홍종영과 약간의 不好가 있더니, <군수가> 벼슬을 그만두고 遞歸하는 길에 예천 경진이라 하는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김순명은 동학의 세력을 믿고 동류 기십 명을 데리고 <군수에게> 달려 들었다. 안동에서 불법 학민으로 토색한 돈을 내고 가라고 하다가 뜻과 같이 못하니 행장과 보료, 요강 등 약간의 집물을 탈취하여 왔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 박학래는 김순명과 일당을 잡아다가 문초한 후 “그 집물을 빠짐없이 묶어 저다가 경성까지라도 갖다주라.”라고 한 후 풀어 주었다고 한다.²⁹

한편 예천 지역 농민군 지도부 가운데도 평소의 행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자들도 있었다. 박학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8월 10일 예천의 민보군이 농민군 11명을 체포하여 모래밭에 생매장하여 죽인 사건 이후 양측의 대립은 점차 심각해졌다. 농민군은 예천 읍내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철저히 봉쇄하여 양곡과 쌀감 등의 보급을 차단하는 한편 금곡, 商東, 소야 집 등에서 통문을 보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보수집강소를 압박해 나갔다.

8월 15일 무렵부터 상주·함창·용궁 3개 고을과 충주의 병사 5,000여 명이 山陽 등지에 모여서 크게 위세를 떨치며 예천읍을 도륙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³⁰ 마침 예천·안동·의성 등에서 농민군을 공격하는 일이

29 『학초진』 1, 100~101쪽.

30 「갑오척사록」 8월 15일, 『국역총서』 3, 281쪽.

벌어지자, 8월 20일경에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강원도의 각 접소에 사통을 돌려 상주의 梨亭과 예천 소야 등지에 모여 예천을 공격하자고 하였다.³¹ 이에 따라 關東大接과 尙北·용궁·忠慶·예천·안동·풍기·榮川·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의 13명의 접주가 상주 山陽과 예천의 금곡 및 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³² 박학래는 이때 “당년 팔월 모일에 용궁을 거쳐 <소야에 모이라는> 도회 통자가 각 집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면서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내려온 발문 비통에 의하면, 爲國安民 취지로 각 접 도인은 창과 총을 준비하되 총은 있는 대로 극력 준비들 하고, 총 없는 이는 창이라도 각각 준비하고 각 접의 기호를 분명히 보기 좋게 하고 모여서 행진함에 항오를 정제히 하라. 우선 8월 모일로 용궁을 거쳐 <소야로 모이기 바라며> 무사히 모여서 앞에 적힌 내용을 급급 시행하시기 바람.³³

박학래는 직곡접의 수하들을 이끌고 용궁을 거쳐 소야로 갔는데, 그가 용궁읍에 들어섰을 때 벌써 소야 상접과 각 처에서 온 농민군이 동헌을 둘러싸고 있었다. 최맹순의 수하 가운데 접주 고매함이 군수에게 군기를

31 「갑오척사록」 8월 20일, 287쪽.

32 「갑오척사록」, 287~289쪽. 8월 21일. 이때 각처의 동도들이 상주 山陽과 본군의 금곡 및 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각각 만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장차 고을을 도륙하겠다고 떠들어서 고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거렸다. 사람을 보내 정당하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세력이 굉장하며 사방에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총과 창검이 숲처럼 뻗뻗하게 늘어서 있고 호령소리와 총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촌가의 양식을 겁탈하여 원군이 소란스러우며 피난민들은 온 들판을 메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289쪽).

33 『학초전』 1, 127쪽.

내어달라고 힐난 중이었다. 군수는 거절하였으나, 소야점의 농민군들이 군기고에서 총을 탈취하여³⁴ 소야로 갔다.³⁵ 소야에는 이미 대장도소, 중군도소, 좌우익도소, 급량도소, 서기 후보 정탐 등의 조직이 편제되어 있었다.³⁶

그 이튿날부터 백 명씩 작대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이때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 안동 출신의 김한돌(金漢弼)이었다. 그는 본래 안동 진영장교 출신으로 황수까지 지내면서, 영장의 복심이 되어 학민(虐民)을 많이 하다가 동학 교세가 확산되고 농민군이 치성하자 동학에 입도하여 안동 발산점의 접장이 되어 또다시 농민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학민’하여 안동, 의성 일대가 도탄에 빠졌다고 한다. 안동 진영에서 잡아 죽이려 하자 김한돌은 부득이 예천 소야점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거기서 농민군 교련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한돌은 8월 24일 본격적인 예천 공격을 준비하던 화지 대도회에서는 대장소의 대장이 되어 농민군의 예천관아 공격을 지휘하였다.³⁷

박학래가 ‘학민’을 일삼던 김한돌의 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활동하는 사

34 “한 정도 가히 쓸 것은 없고 모두 敝件으로 보였다.”고 하였다(『학초전』 1, 104쪽).

35 박학래는 소야에 도착하기 전에 용궁에서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했으나, 「갑오척사록」에 따르면, 용궁 관아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것은 8월 25일이었다. 박학래의 착각으로 보인다.

36 『학초전』 1, 105쪽.

37 『학초전』 1, 108~109쪽.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한돌과 박학래는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안동에서 김한돌을 잡으려 했기에 그가 그것을 “피해서 동학진에 와 있는 줄 비단 세상뿐 아니라 예천 군수와 집강소가 그리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김한돌 역시 이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학초전』 1, 128쪽). 김한돌은 12월 초 안동도총소에서 체포되어 黃黙伊·金庶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갑오척사록』, 328쪽).

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바 있듯이 그가 농민군의 행동과 관련하여 “유불선 三道가 어찌된 것인 의무인지도 모르고 攻滅之門의 亂臣賊子 나듯이 동학의 불법자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받아들인 사정 등이 그로 하여금 농민군들의 집단적 설분 행위를 저지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 맺음말 - 농민군의 해산과 반농민군 세력의 농민군 탄압

농민군들은 해산하라는 국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병>이라거 하면서 항쟁을 이어갔다. 8월에 들어서는 “수상한 무리들이 密旨라고 하거나 혹은 分付라고 하여 민간에서 선동하는 일이 일어났다.”³⁸ 대원군과 농민군 간에 모종의 과계가 있다는 소식은 박학래에게도 전해졌다. 8월 20일경 소야로 모이라는 통문을 접한 뒤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통장을 보고 헤아려 생각해 보니 요즈음 세상 형편이 하늘의 인심과 도탄에 빠진 생명들이 필시 혁명은 일어나고 말 것 같았다. 비밀리에 들리는 말이 임금의 외통(外通)조도 있다 대원군이 내용이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 임진대적(臨陣對敵)하는 날에도 있는 남의 총 귀에 물 나기 하는 수도 있다느니, 조정의 간신 세력을 교혁명하여 위국안민(爲國安民)과 광제창

38 『갑오군정실기』 1, 9월 26일.

생(廣濟蒼生)한다는 등 분분하였다. 각항 들리는 말의 취지를 알 수 없고 각 군 수령은 민요(民擾)에 쫓겨들 많이 가고 동학 창궐 후 토색 강도 같은 행위는 스스로 불금이 되고 각 관원의 횡령이 전혀 없는 때이었다.³⁹

그러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대원군의 내용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천 농민군은 8월 28일 서정자 전투 이후 약화되어 갔다. 반농민군의 활동과 일본군의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까지도 예천을 다시 공격하려고 기도가 있었으나, 10월 18일 예천 읍내를 공격하기 위해 충청도에서 1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赤城洞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던 소야의 관동대접주 최맹순이 11월 21일 충주 篤基에서 체포되면서 사실상 그 활동이 약화되어 갔다.

경상 북서부 지역 반농민군의 활동은 상주의 前承旨 鄭宜默이 영남소모사로 임명된 9월 29일⁴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0월 16일에는 정의목이 영남소모사로 임명된 사실이 상주 관아로 통보되었고, 정의목은 10월 19일에 상주에 도착해서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⁴¹ 10월 20일에는 將官廳이던 碧油堂에 召募營을 설치하였다.⁴² 11월 8일 확정된 소모영 막하 과임기(召募營幙下爬任記)에 따르면 前應教 張承遠과 幼學 姜奭熙, 朴海祚, 曹喜宇 등이 종사관으로, 유학 金奭中이 游擊將으로 차출되었고, 출범 당시 소모영의 병력은 200명이었다.⁴³

39 『학초전』 1, 103쪽.

40 「갑오군정실기」 1, 9월 30일; 『계초존안』의 1894년 9월 29일;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9월 29일.

41 「갑오군정실기」 4, 11월 11일.

42 「소모일기」, 『국역총서』 3, 421쪽.

창원부사 李鍾緒, 대구관관 池錫永, 인동부사 趙應顯, 거창부사 丁觀燮 등과 함께 경상도 지역 소모사로 활동하게 된 그의 관할 지역은 안동, 상주, 청송, 순흥, 문경, 예천, 영천, 풍기, 의성, 용궁, 봉화, 진보, 함창, 예안, 영양 등 15개 고을이었다.⁴⁴ 소모영에서 특히 김석중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김석중은 민보군 가운데서 선발한 200명의 別砲軍을 이끌고 영동, 청산, 보은, 옥천 등 충청도 지역 농민군 진압에도 앞장섰으며,⁴⁵ 12월 17-18일에 걸쳐 치러진 보은 복실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상주 소모영은 1895년 1월 24일 해체될 때까지 상주는 농민군 진압의 거점이 되었으며, 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형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⁴⁶

박학래는 8월 28일 전투 이후 예천 보수집강소의 행패에 대해 다음과

43 「소모사실」, 『국역총서』 9, 133~137쪽.

44 「갑오군정실기」 7, 12월 6일.

45 「갑오군정실기」 9, 12월 21일.

46 소모영으로 끌려와서 처형된 농민군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만 하여도 다음과 같다. 10월 22일 농민군 9명(태평루 앞), 11월 7일 姜善甫(태평루 앞), 11월 7일 姜弘伊, 金景俊 등 2명(남사정), 11월 24일 南戒一, 孫德汝, 崔善長, 李義城, 張判成, 皮色匠, 億孫 등 6명(태평루 앞), 12월 12일 李得伊, 朴起奉, 權和一, 金順五, 李道生, 裴春瑞, 朴昌鉉 등 7명(남사정), 12월 14일 崔仁叔, 尹景五, 金順汝, 全明叔 등 4명(태평루 앞), 12월 22일 상주의 朴孝植, 충청도 영동의 金興業, 金慶學, 청산의 安小斗劫, 金有成, 朴基俊, 池相象, 황간의 金士文, 李尙信, 申允石 등 10명(남사정), 12월 24일에는 全五福, 李圭三, 李太平 등 3명(남사정) 등 모두 42명이었다. (『召募事實』(『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1); 『召募日記』(『叢書』 11); 『討匪大略』(『叢書』 11); 『甲午斥邪錄』(『叢書』 11); 『歲藏年錄』(『叢書』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에서 정리). 또한 정의묵은 강은 양면 전략을 취하여 “백성들 가운데에 협박을 받아 동학에 들어갔던 자들에게는 귀화를 설득하여 갔다가 귀화한 자가 11월 8일 현재 1,014명(『소모사실』, 11월 8일, 『국역총서』 9, 129쪽; 『갑오군정실기』 5, 11월 17일), 11월 29일 1,630명에 이르렀다(『소모사실』, 11월 29일, 『국역총서』 9, 157쪽). 상주 소모영의 구체적 활동상에 대해서는 신영우, 앞의 글, 1986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같이 기록해두고 있다.

8월 28일 밤이 지나니 예천 집강 장문건 등이 奸計思想은 <다 말할 수 없었다.> 동학이 다시 무리를 모아 공격할 리는 없을 터, 동학에 있던 한 두 사람이 취당(聚黨)하거든 잡아 죽여 말을 없이 할 작정으로 군수와 공모하여 동학을 용하게 많이 잡은 형용 자공하여 대구 감영에 보고하였다. 읍저 인민을 대설기창(죽창)으로 다중 취합하여客舍 대청에 집강 군문을 설치하였다. 각항 파임을 정제하고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 재산이나 있는 사람, 전자 험(欠)이 나 있는 사람, 동학을 更起主唱, 즉 동학을 다시 일으킬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포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계집이 가색이면 빼앗아 집강군 첩으로도 삼았다.

전곡과 토지에 기물까지 재산을 강탈하여 전곡은 군량으로 <충당>하고 매매할 건 방매하고, 호의호식에 의기양양하여 촌민의 재산 여지없이 떨어갔다. 읍의 백성은 집강소를 빙자하여 거진 착실한 요부라, 읍촌 간 직업 없고 부랑 잡기자 모두 집강에 가서 붙어 누가 동학이라 하고 재산 없는 자 재산을 뺏드러 먹고 살기, 계집을 취코자 한 자 계집을 뺏어 살기, 예전에 <자신과> 험이 있었던 자를 동학이라 칭탁하여 원수 갚기, 그 전에 받은 공전이라도 아니 받았단 칭하고 족속에 족징, 길로 가는 장사가 재산이 많은 듯하면 동학이라 <덮어씌워> 잡아 죽이고 재산 떨어먹기, 시장에 물건 오면 동학인의 물건이라 뺏어먹기, 만일 똑똑하게 대항하면 동학의 향대라 포살하기, 관청으로는 동학 잡은 자 공으로 군용을 세우고, 실상은 동학에 乞降自伏하여 和好各散 후에 쓸데없는 세계 군용을 베풀고 실측은 백성 잡아 살해, 무단 떨어먹는 강도소라. 그중에도 부지손줄이 집강과 동학이 어찌하여 화호각산된 속내를 모르고 바람에 흩친 대로 행동하며 작폐, 無數作弊를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

민보군의 행동 양태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이라 생각된다. 예천 전투 이후 관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닌 박학래의 직접적인 경험담이나 행적과 더불어 농민군에 대한 탄압과 농민군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투고일 : 2023.10.23.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참고문헌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4, 6, 7, 8.
- 『東學亂記錄』 下
-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 9, 11.
-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9.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

- 이이화, 최재목, 임형진, 신영우, 박홍규 외,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 혁명사에서 대구와 경상 감영의 역사적 위상』(동학총서 4), 모시는사람들, 2015.
- 이이화, 신영우, 이노우에 가즈오, 임형진 외, 『경상도 구미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6), 모시는사람들, 2016.

-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 _____,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52집, 1986.
- _____, 「19세기 영남 김산의 양반지주층과 향내 사정」, 『동방학지』 70집, 1991.
- _____,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 _____,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 _____,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2008.
- _____,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_____,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 _____, 「1894년 일본군 노즈(野津) 제5사단장의 북상 행군로와 선산 해평병참부」, 『동학학보』 39, 2016.
- 신진희, 「의성지역 향촌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 이병규,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 2015.
- 이윤갑, 「1894년의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_____, 「19세기말 경상도 성주의 사회변동과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119, 2015.
-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안동문화』 15, 1994.
- 표영삼, 「경상 남서부 동학혁명」□교사교리연구□제6호, 2000.
- _____, 「경상북서지역 동학군 활동」, 『신인간』 678, 2007. 2·3월 합동호.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학초전』과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배항섭(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이 글은 새로 발굴된 자료인 <갑오군정실기>와 <학초전>을 통해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민보군의 농민군 탄압의 일단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실기>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최고 군사 지휘부의 공식 기록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많이 담고 있지만, 경상도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학초전>은 경상도 사람 박학래(1864~1942)가 평생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을 나이 60이 되던 1923년에 기록한 자서전이다. 박학래는 경상도 예천 순흥 경주 청송 영양 등지에서 살았으며, 동학농민전쟁에 지역 지도자로 가담하기도 했다. <학초전>에는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 혹은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다르거나 기왕의 이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되,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학초전>에 기록된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상,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반농민군의 구체적 탄압 실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최맹순, 예천, 동학농민군, 보수집강소, 민보군

Abstract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Gyeongsang-do and oppression of anti-Peasant Army - Focusing on “Hakchojeon” and “Gapo-gun Jeongsilgi”-

Bae, Hang-Seob(Academy of East Asia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HK professor)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northern Gyeongsang-do and the suppression of the Peasant Army in Minbo-gun through the newly discovered data "Gapo-gun Jeongsilgi" and "Hakchojeon." <Silgi> is the official record of the highest military command for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contains many unknown contents, but there are not many records related to the Gyeongsang-do area. "Hakchojeon" is an autobiography written by Park Hak-rae (1864-1942), a Gyeongsang-do man, in 1923 when he was 60 years old. Park Hak-rae lived in Yecheon, Sunheung, Gyeongju, Cheongsong, Yeongyang, Gyeongsang-do, and participated as a local leader in the Donghak Peasant War. In <Hakchojeon>, there are many facts that were not shown in previous data regarding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or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already known or that can complement the previous understanding. Based on the already published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examined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Gyeongsang-do, focusing on Choi Maeng-soon's character, tragic end,

and new contents recorded in <Hakchojeo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anti-Peasant Army's su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key word : Choi Maeng-soon, Yecheon, Donghak Peasant Army,
conservative <jipkangso>, Minbo-gun